

## 수상못한 수상소감

이 창 남\*



1990년도 한국강구조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5월 26일(토)에 개최된다는 통지가 왔다. 아울러 16:30에 시작되는 정기총회에는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전갈이다.

수많은 건물들, 지난 25년간 무려 2,000여 건물 구조설계를 했으면서도 단 한번 상이라고 받아본적 없는 터에 이름도 생소한 한국강구조학회라는 데서 상을 준단다. 선후배, 동료들이 경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를 도와 구조설계만 뒷바라지 하다보니 그동안의 건축상들은 전부 건축가에게만 돌아가서 구조설계자가 작품상을 받기는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이란 원래가 그 물리적인 값어치보다는 오히려 명예나 정신적 칭찬 또는 격려의 뜻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상은 그 주고 받는 순간의 시각적 효과인 악수 하고 어찌된 카메라 후라쉬 터지면서 박수소리를 듣는 잠시뿐의 영광이 전체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필자가 공군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하던 이문관 결혼식에 기념촬영 역할을 자청했었는데 당시 가게에서 추천하는 Agfa 필름을 사 넣은 것이 그만 감광된 것이어서 망신한 일이 생각한다. 4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자식마저 없는 그 부부를 생각하면 진땀이

나는데 이는 면사포 쓰는 그 자체가 결혼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 기록사진을 평생 보고 또 보며 옛날을 회상하는건데……

하지만 학창시절 우등상장, 개근상장, 돈으로 따지면 종이값과 인쇄비에 불과하지만 내 나이처럼 바랜 누런 종이를 지금껏 소중히 간직하는 것을 보면 순간의 박수 갈채 이외에 두고 두고 진국이 우러나는 호뭇함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토요일 오후, 잘하면 학술발표회에도 가보고 적어도 정기총회에는 절대 늦지 않게 참석하리라고 다짐하며 수첩에 Memo도 해 두었다. 전날 학회에서 한차례 확인 전화까지 걸려왔다. 물론 가야지요!!

드디어 토요일, 옷도 평소보다는 조금 단정하게 가려입고, 출근해서 허둥지둥 불일보다가 오후 3시에야 길을 나서게 되었다. 안내장을 찾아 뒷면을 힐끗보니 고려대학교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화살표가 있다. 참 친절도 하군.

여의도를 떠나 늦어도 한시간이면 고려대학에도 도착할 것이니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마포대교에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한다. 라디오나 들으면서 지루함을 달래야지. 목소리 절절한 경상도 사투리의 목사님이 하필이면 “상을 좋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신다. 자기도 처음에는 감사패 상패들을 잘 보관해 두다가 이제는 다 버리고 애\*

\*정회원 : 선구조연구소 대표

무관심하려 한다는 요지였다.

상을 받으면 조금은 우쭐해지기도 하고 주위로부터는 오히려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칭찬은 앞으로 더 나가려는 노력의 속도에 제동을 거는 것과 같은 역할이 되기도 한다. 안받겠다고 사양할 걸 그랬나 보다.

손님 청해놓고 잔치준비가 완벽한데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최자가 얼마나 당황할까? 이런 게 아마도 ‘괘씸죄’ 해당일텐데.

지금 와서 수상을 포기하는 건 불가능하겠지.

고려대 정문 오른쪽으로 돌아서 무슨 건물일까? 안내장을 꺼내 봐야지.

이 정신머리!! 책상위에 놓고 왔군.

아무려나 그 유명한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총회 장소야 못찾아 갈려구. 초행길 미국, 구라과에서도 잘 찾아다니는 경력이 있는데.

3시 50분, 드디어 고려대학교에 도착했다. 무슨 체육대회인지 운동장이 왁자지껄 하다. 정문을 들어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는다. 안내원이 왼쪽으로 돌아가란다. 강구조학회 총회장이 저쪽이니 오른쪽으로 가야 한대도 막무가내다. 일방통행이란 다.

고려대학교, 넓기도 하구나 자동차도 만원이다. 꼭대기 본관인듯한 건물 뒷편에서야 겨우 빈자리를 찾아 주차를 했다. 4시 정각, 이제 천천히 걸어서 총회장을 찾아 봐야지. 햇빛은 뜨겁고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한다. 이 건물 저건물 기웃거리봐도 자동차는 만원이고 명찰을 단 나이먹은 사람들이 오락가락한다. 우선 반갑다. 강구조학회에 오셨습니까? 강구조가 뭐요? 아니구나. 정문에 가서 다시 물어봐야지. 종종걸음으로 내려가 기웃거리어도 안내장 하나 붙어 있는 게 없고 어지러이 무슨 빨갱이 짓거리 같은 빠라만 붙어 있다. 벽이 모자라 가로수에 없어 놓은 것도 있다. 이렇게 빈 틈이 없으니 점잖은 학회에서 그 틈에다 비비고 붙여 놓지는 않았겠지. 아마 그래서 친절하게 조감도까지 그린 안내장을 보냈나 보다.

정문 수위에게 물어 봤다. 고개를 흔든다. 더러

조바심이 난다. 땀도 나고 이제 내 걸음으로 저 많은 건물들을 들여다 보자면 아무래도 시간 내에 도착할 것 같지 않으니 기동력을 발휘해야지. 승차게 자동차에 가서 몰고 건물마다 뒤지기 시작했다. 현관 경비마다 물어보아도 전혀 캄캄이고 후문 수위는 아마도 상경대학에서 할 거란다. 설마 총무과에서야 자기네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알겠지.

거기서도 실패다. 사무실은 퇴근해서 전화해도 소용 없고 물어볼만한 사람은 전부 여기 왔을 터이니 방법이 없다.

분명히 오늘이었는데, 이렇게 건물마다 두번 세번 들다보니 시간은 벌써 4시 30분, 만약 찾는다 해도 망신스럽게 헐레벌떡 찾아들어가기가 쑥스럽다. 아마 내일 날짜를 잘못 알았는지도 모르지.

주일 아침 일찍 김덕재 부회장님택에 전화를 걸었다.

대뜸 어떻게 된거야? 본관으로 갔구먼.

본관에도 갔고 건물마다 다 뒤졌지요.

아이구 이공대학이 따로 있는 걸 몰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국어 성적이 말이 아니다. 컴퓨터채점인데 답안 기표가 하나씩 어긋나서 그렇단다. 알고 모르고에 앞서서 그렇게 조심성 없으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거니?!! 하고 나무랐던 게 엇그제였는데.

이로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상반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려야지.

오늘 내가 채택한 구조방식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 이공대학 과학도서관에 가야 있는데 본관에서 해매는 격의 것은 아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을 영똥한데서 땀 흘리고 시간 소비하는 나를 일깨워 주시려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야겠다.

“모처럼 명석 깔아놓고 잔치를 마련하신 선배 여러분께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